

주요소식



2024년 사업실적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선보는 12월 12일 부산인재개발원에서 2024년 사업실적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사업실적을 최종 점검하고 내년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전사 책임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가 제창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첫 발표는 선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 'LET'S GO 2025' 요약 발표였다. ▲명품 모듈 신(新)격차 ▲친환경 LNG 연료공급 유닛 FGSS(Fuel Gas Supply System) 성장 가속 ▲가치 공유 지속가능 경영의 세부 실행과제 보고가 진행됐다. 올해 새롭게 추진된 선사인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

원가절감 실적 소개와 HSE팀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현황 및 영업 부문 보고를 끝으로 오전 일정이 종료됐다.

중식과 기념 촬영 후에는 생산·설계·품질 부문 보고에 이어 자재조달·경영지원·경영기획·전산·시운전 부문 보고를 이어갔다. 기술연구소와 선보피스코 최종적으로 이번 연도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보고회는 최금식 선보Family 회장과 법인별 대표이사 강평, 사가 및 구호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LET'S GO 2025 전략에 더해 선사인 프로젝트가 새로운 중점 과제로 설정된 만큼, 선보Family는 더 적극적으로 매출 달성과 주식시장 상장 등 목표 달성에 매진할 전망이다.

사회공헌

선보Family, '따뜻한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부 행렬



올해도 연말을 맞아 선보Family의 지역사회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렬이 이어졌다. 선보유니텍은 이웃돕기 캠페인인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12월 2일 구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부산을 가치 있게'라는 표어와 함께 108억 6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웃돕기 캠페인이다. 1억 8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상승해, 목표액을 달성하면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 모인 성금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부산지역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선보공업은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대1동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선보공업은 매년 후원을 통해 저소득 중장년층 틀니 치료 지원을 위한 '지역과 함께 찾은 미소' 사업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선보하이텍과 선보유니텍이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으로 쓰일 인재육성기금 5백만 원씩을 각각 전달했고, 선보피스코 김해시에 이웃돕기 성금 5백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에는 ▲서재욱 부사장(선보공업 경영지원 담당) ▲김청옥 선보유니텍 대표이사 ▲김상도 선보하이텍 대표이사 ▲최홍렬 선보피스 대표이사 등 선보Family 임원진이 참여했다. 올해 부산시 사회공헌장 '베룩부문 으뜸장'을 수상한 선보는 나눔명문기업으로서 ESG가 치경영 실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사회공헌

“온기로 안녕을 전해요” 선보Family, 사랑의 연탄 나눔



12월 7일 선보Family가 감천동 2지역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오전 7시 30분경 감내1로 인근 공터에 모인 선보Family는 장갑, 조끼 등 복장을 착용하고 연탄 1만 장 기증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선보Family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새겼다. 임직원 100여 명과 배우자 및 자녀 30여 명은 부산연탄은행 사회복지사의 지도하에 4개 조로 나뉘어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생수와 간식 등이 지급됐다. 지계에 연탄 신기, 옮기기, 각 가정 방문까지 역할을 나눠 2시간가량 진행된 봉사 활동은 오전 9시 30분경 마무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재값과 배달 비용 등이 상승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연탄이 여전히 필수적인 난방 수단임에도, 연탄 사용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기부에 대한 관심까지 줄어드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선보공업을 비롯한 지역 대표 뿌리 기업들의 직간접 후원을 통한 관심 환기와 활동 홍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선보Family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이웃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임직원의 나눔 참여를 독려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보Family 제26회 부산마라톤대회 참가



선보Family는 11월 17일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26회 부산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올해는 길어진 가을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야외 행사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선보Family는 올해도 많은 인원이 참가하며 주말 아침 모처럼 가족,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선보Family는 오전 8시 대회장에 집결해 장림포구와 낙동강변을 달리며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대회 코스는 하프코스, 10km, 5km 부문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회 참가비는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50% 지원됐으며, 임직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다과와 식사도 준비됐다. 5km 부문 이상민 선임(설계운영팀)과 김민진 선임(EM팀), 10km 부문 김수환 선임(조선생산팀)과 김혜선 사원(프로세스설계팀)이 선보Family 참가자 중 남자·여자부 1위 기록을 달성하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프코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황지석 책임(자재조달팀)은 “선보Family로서 부산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영광이었다”며 “앞서 참가한 마라톤에서 서브-3 기록을 달성한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사내 1등의 영광을 누리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기회가 된다면 선보Family와 함께할 수 있는 마라톤 클럽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달리기를 비롯해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는 동료들과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언젠가 함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육

‘2025 비전 달성을 위해’ 신규입사자 워크숍 개최

선보는 11월 8일 오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4 신규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1년 이내 입사자(2023년 11월 이후 입사) 약 4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선보의 비전과 경영 목표 및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소통과 협력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과정은 최경호 상무가 진행한 ‘Let's Go 2025 & 선사인 프로젝트’ 비전 설명을 비롯해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유무성 상무)’, ‘PEM 수전해 기술 현황(강승우 책임)’, ‘CEO와의 대화(최금식 선보Family 회장)’,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장호길 상무)’ 등을 주제로 한 임원진 강의로 구성됐다.

오후 과정에는 사가 노래 교실(문혜진



강사)과 ‘스마트한 업무 소통법-수명·보고·지시·전달(심선희 강사)’, ‘BOG Compressor & FGSS Control System(김영수 상무)’, ‘선보가 꿈꾸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김창욱 선보유니텍 대표이사)’, ‘선보의 성장스토리와 조직문화(서재욱 부사장)’, ‘소통의 기술(박두선 선보Family 부회장)’ 등 주제 강연이 마련됐다. 저녁 식사 후 열린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신규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며 흥을 더했다.

신규입사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선보의 2025 목표 달성 및 신규 프로젝트 추진 계획 전반을 이해하고,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교육

선보Family 임원 합동 워크숍 성료

12월 13일과 14일 전남 영암군에서 선보Family 전 임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선보공업을 포함한 6개 법인 임원 31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2025년 선사인 프로젝트 달성 방안과 기업 공개를 위한 준비 사항 및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임원들은 첫날 오전 선보하이텍 영암공장과 선보유니텍 대불공장 현장을 순회한 후 공장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숙소로 이동해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튿날에는 2개 조로 나뉘어 친선 골프 경기와 월출산 둘레길인 기찬뫼길 트레킹을 즐긴 후 오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자리에 모인 임원들은 목표 달성 외에도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법인별 상호 협력 및 소통 방안을 공유할 수 있었다.



Sunshine Project : 선보Family '새로운 도약'의 시작!



Q.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이 궁금해요.

A. 선보Family는 그동안 조선업 장기 침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연 매출 2천억 원대를 기록하며, 꾸준히 흑자 경영을 유지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매출이 2천억 원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친환경 신사업 진출을 통해 기존 조선 기자재 기업에서 벗어나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며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Q. 선사인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A. 선보Family가 기존 조선 기자재 기업의 한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까지 매출 5천억 원, 순이익 5백억 원 달성을 목표로, 이를 뒷받침할 사업 모델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Q. 프로젝트의 추진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식 추진 기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지만, **최종 목표가 '2027년 성공적인 주식시장 상장'**인 만큼 기간 종료 후에도 회사의 모든 활동은 프로젝트와 연결됩니다.

Q.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은 어디인가요?

A. 본사, 구평, 대불, 영암, 피스 등 선보Family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이 프로젝트의 현장**입니다.

방문

부산기공·한국해양대, 공업·유니텍 현장 탐방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들이 11월 20일과 27일 각각 선보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탐방 활동을 전개했다.

20일 오후 부산기공 2학년생 40명은 선보유니텍 구평공장에 도착해 이동준 상무의 지도하에 현장 견학을 진행한 후, 선보공업 대대2공장으로 이동해 정제현 상무와 D동 및 컨트



롤 룸을 견학했다. 본사에서 홍보관과 설계사무실, 교육장을 둘러본 후 서재욱 부사장의 회사 소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7일 방문한 한국해양대생들도 같은 일정을 소화하며 선보의 주력 사업 분야와 현장 직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다. 열띤 질의와 적극적인 태도로 현장 분위기를 달군 학생들은 기념 촬영을 끝으로 탐방 활동을 마무리했다.

회사 소식

'잠깐 쉬어가세요' 커피 트럭·심리 상담 버스 방문



11월 13일과 20일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에 커피 트럭과 심리 상담 버스가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기업 지원 사업은 근린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휴식 시간에 커피 및 다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보공업 본사에서 1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됐으며, 선보유니텍 구평공장에서는 20일 오전부터 점심 전까지 운영됐다. 커피 트럭에서는 샌드위치와 음료가 제공되고, 버스 안에서는 타로 상담과 성격 심리 상담, 마음 건강 검사가 이뤄졌다. 임직원들은 다과와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즐기며 동료들과 모처럼 특별한 휴식 시간을 가졌다.

Q. 프로젝트 추진 주체는 누구인가요?

A. 공식 프로젝트 기간에는 **선보Family 일부 임직원, EY 파르테논, 선보엔젤파트너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 베스트 직원들이 협력해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구성원의 하나 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Q. 회사가 상장하면 구성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상장이 되면 선보Family는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을 통해 회사의 성과를 직접 공유할 수 있으며, 주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주가 상승 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재무 안정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보장되며, 신사업과 프로젝트가 늘어나며 승진이나 부서 이동 등 성장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 상장을 통해 회사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직원들에게 더 큰 경력 가치와 자부심을 선사할 것입니다.

Q. 5천억 원이라는 목표는 도전적인데, 이 금액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A. 현재 매출의 2배 이상이기에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 심사 대상기업에 일반 투자자들이 갖는 관심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한정됩니다. 대학 입시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에 부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수재들이 몰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보Family는 오랜 조선 경기 침체의 터널을 지나,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늘어나고, 올해보다 내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경기의 호황 속에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미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사업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되는 모습은 분명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6년 목표 매출 5천억 원은 선보Family 영업팀과 임직원들이 신중하게 도출한 숫자입니다.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직원인 저는 선사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읽고 관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선사인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목표와 과제는 2025년 사업계획 및 KPI에 반영돼 곧 현업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보Family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입니다.

회사 소식

선보유니텍, 가스공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 참석



선보유니텍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공사)가 11월 4일 개최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수소산업 발전의 핵심인프라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용품 4종(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의 법정검사와 성능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수소용품 창업기업과 해외수출 희망기업도 지원한다. 센터는 시험동에 다양한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제조사 지원 및 교육을 위한 고객지원동도 갖추고 있어, 안전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전민재 상무(대불·영암 품질경영 담당)는 “선보유니텍이 구축 중인 수전해 설비는 AH271 Code를 기반으로 한 법정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센터의 이전 개소를 축하하고, 수소 관련법에서 요구되는 검사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의 수소법 중 AH271은 2021년 초기 제정돼 현재까지 여섯 번 개정됐는데, 이번 센터 설립에 따라 해당 코드가 더욱 견고하게 수립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회사 소식

라이트하우스, ETRI-조광페인트 교류회 개최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주최·주관하는 ETRI-조광페인트 교류회가 11월 8일 조광페인트 음성공장에서 열렸다. 이날 교류회는 ETRI와 조광페인트 양사 간 협력 가능한 기술을 모색하고, 기업 정보 공유를 통해 세부 교류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TRI 임원 및 연구원들은 ETRI의 연구성과 활용 기업 사례와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조광페인트와 ETRI의 기술 책임자가 참여하는 1대1 협력 미팅을 진행했다. 12월 12일에는 ETRI 대전본원에서 조광페인트-ETRI 2차 기술교류회가 개최됐다. 참가 기업들은 향후 협력을 통해 ETRI 기술 기반의 신제품 개발 및 원가 개선·양산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구성과 활용 기업인 (주)호전에이블의 보유 기술에 대한 원가경쟁력과 상용화 가능성 진단도 함께 진행한다.



안전

‘함께해요 4대 금지 캠페인!’
안전일터 조성의 날 실시

11월 5일 선보공업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흥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장을 비롯한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역본부장, 고용노동부 부산청 관계자, 부산 지역 조선 기자재 기업 안전담당자 등 30여 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선보에서는 박두선 선보Family 부회장, 서재욱 부사장, 임영삼 상무, 최경호 상무, 배상준 선임이 자리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 인사말, 회사 소개 영상 시청, 선보의 안전보건 활동 공유, 안전 구호 제창, 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H.S.E담당 임영삼 상무는 선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공장동 내외부 도색 상태, 안전 통로 구획, 안전 표지판 부착 등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통해 선보의 훌륭한 안전보건 문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관계자들은 외국인 안전교육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고, 최근 안전 분야에서 화두인 외국인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선보는 공장 안전 순회를 돌며 회사 대표 제품을 설명하고, 작업 안전 표지물과 시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게시물 등을 소개했다. 조선 기자재 기업 안전담당자들은 “선보의 우수한 안전보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구석구석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를 전했다.

선보Family

‘선포터즈 덕분에’
복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포터즈를 아세요?

‘선보 서포터즈’의 줄임말로, 조직문화 활성화와 기업 이미지 개선 활동, 임직원 대상 홍보 및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개선점 제시 및 사내 복지 제도 등 회사생활에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선포터즈에게 문의 주세요!

한마음대회 상금 인생!

1등 50,000원 → 1등 100,000원
2등 50,000원



선보Family

선보유니텍·선보하이텍, 호남사업장 추계 등반대회 성료



11월 2일 선보유니텍 대불공장과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이 2024년 추계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호남사업장 임직원 가족들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등반대회는 산행 외에도 식사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가족 동반 행사가 마련되며 만족도를 높였다. 본사 및 협력사 임직원,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9시 전남 목포 고하도에 집결한 선보Family는 용오름 둘레길 약 6km를 함께 걸으며 가을 산과 바닷가의 풍광을 즐겼다.

등반 코스에는 등산로 외에도 고하도 전망대와 해상 데크, 해안동굴, 용머리 조형물 등 볼거리가 풍부해 산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등반을 마친 선보Family는 식당으로 이동해 오찬과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경품으로는 TV와 무선 청소기, 밥솥, 한돈 세트 등이 지급됐다. 선보Family는 호남사업장 임직원 가족들이 모처럼 대규모로 함께하는 동반 행사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상

선보유니텍 신명한 선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 수상

선보유니텍 신명한 선임(신사업기획/영업팀)이 11월 11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31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에서 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가스안전 및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가스안전 실천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신명한 선임은 가스안전관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199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가스안전산업분야의 유일한 정부포상 행사로, 철저한 가스안전관리에 힘써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가스산업 종사자들이 모여 가스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가스안전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1995년 577건이던 가스 사고는 2022년 73건으로 크게 줄었고, 인명 피해도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선보는 가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고도화와 에너지 관련 기술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